정책사업 5년간 제외농가 기준 사료자금 자료확보로 판단

모돈감축 하고도 낭패 볼수도

한돈협 "최종위임장 미제출·서류미비 사례 구제를"

정부 방침에 따라 모돈감축에 참여치 않은 농가는 앞으로 5년간 모든 정책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

하지만 특별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자료확보 여부에 따라 그 대상자가 결정되다보니 정작 모돈감축을 이행하고도 정책적 불이익을 받게되는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져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모돈감축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돼 정부로 부터 사료구매자금 50%를 추가로 지급받는 농가는 모두 3천201호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나머지 2천667호의 농가들은 축산시설현대화사업자금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자금, 써코백신 등 모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기 지원된 50%의 사료자금 회수는 물론 지자체나 농협의 지원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대한한돈협회는 이에대해 애당초 모돈감축 사업에 참여의사가 없었던 1천600호를 제외한 나머지 1천67호의 경우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구제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우선 모돈감축을 위한 위임장을 제출하고, 감축도 이행했지만 막상 사료구매자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시군에 대해 최종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그 대상이다.

전국에 546호 정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감축완료 서류를 완비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359호도 한돈협회가 요구하는 구제대상이다.

사육규모가 적어 이번 모돈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로 최종 위임장은 제출했지만 감축완료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나 위임장을 제출했으나 모돈감축을 이행치 않아 최종서류 제출을 포기한 농가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모돈 100두 미만 비육농가와 FMD 살처분 농가 중 모돈 200두 미만농가의 경우 모돈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단순한 판단착오나 이해부족으로 인해 서류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며 "일정기간 시간을 주고 이 기간 내에 감축완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구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이외에도 서류제출이 완료됐지만 10% 감축목표 미달 또는 두수 증가 등으로 인해 감축평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162호에 대해서도 추가감축 완료 또는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구제받을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일호

"모돈 유선조직 유지물질 필수적"

김성우 교수, 필수아미노산·효모대사물질 급여를
〈美노스캐롤라이나大〉

'신한강좌'서 지적…포유기 영양전략 모돈관리 성패로

최근 생산비 상승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돈업계에 도움을 주고자 신한바이오켐(회장 구본현)이 해외 우수 강사진을 초빙, 지난달 24일 삼정호텔(서울 역삼동 소재) 로스엔메리홀에서 사료업계와 수의사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신한강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구본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는 2014년 칠레산에 이어 2016년 미국산 돼지고기가 무관세로 들어올 예정이다. 평균 생산성이 MSY17두 수준인 국내 양돈업은 경쟁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그 대안으로 동물성 단백질의 차별성과 축산물 건강효과 홍보강화와 분뇨처리설비 공공투자 확대, 국제 경쟁력(기술정보) 강화 등 양돈업계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강연에 나선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김성우 교수는 '모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양적 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50년간 모돈의 다산성은 끊임없이 개선되어 왔으며, 태아도 이전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모돈 1일 비유량도 이전보다 크게 증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모돈의 영양상태가 포유자돈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며 "유선조직 유지에 요구되는 필수아미노산과 효모대사성 물질의 적절한 급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태아의 단백질 획득과 유선의 단백질 획득은 대부분 임신후기에 일어나므로, 포유기간의 올바른 영양전략은 성공적인 모돈 관리의 필수적 요소라는 것.

따라서 영양섭취와 소화, 면역상태와 일반 건강상태는 포유기간 뿐만 아니라 임신후기 모돈 관리의 핵심으로 모돈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요인들은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우중 wjjeon@chuksannews.co.kr

일본 MSY 30두 양돈장…핵심 사양 포인트는

포유모돈 하루 4회 급여케 분만당일 분할포유·자돈건조 총산 14두 이상 다산성 모돈

MSY 30두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한수양돈연구소는 최근 대전 본소에서 해외 전문가 초청 'MSY 28두 이상 농장 사양관리 및 컨설팅 사례발표회'를 갖고 그 핵심노하우를 집중 조명했다.

이날 강연에 나선 일본의 이시제키 사요코 수의사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농장으로서, MSY 32두에 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 설명했다.

그 첫 번째는 사양관리.

사요코 수의사는 해당농장의 경우 포유모돈에 대해 1일 4회 급여를 통해 초산돈의 경우 8kg, 경산돈은 10kg이상의 사료를 공급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만당일 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분할포유를 2회 실시하되 분말건조제를 활용해 분만 즉시 자돈을 건조시켜 젖을 빨리고 있다는 것. 또 번식농장에서 이유 즉시 자돈농장으로 이동, 같은 돈사에서 출하시까지 사육하는 2-SITE의 사양관리 방법의 강점도 소개했다.

이에 힘입어 21일령에 이유 후, 평균 체중이 115kg에 도달하는 170일령에 출하할 때까지 폐사율이 6%이내에서 관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PRRS는 물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까지 음성을 유지할 정도로 철저한 위생 방역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점도 눈에 띄었다.

사요코 수의사는 이와관련 "모든 농장관리와 경영은 정리, 정돈, 청결을 습관화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일본에서는 2년전부터 정리, 정돈, 청소를 습관화하는 운동이 전개되면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많은 산자수를 기대할수 있는 다산성 모돈의 확보도 MSY 30두 실현을 위한 핵심요소로 지목됐다.

우수인력 확보 또한 관건으로 지목됐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손에 닿는 양돈법률 상담〈16〉

매입하려는 양돈장이 가축사육제한지역입니다. 계속 이어할 수 있을까요?

Q:양돈장을 매입하려하는데 그 곳이 수변구역이라서 가축사육제한지역입니다. 기존 농장주는 오랫동안 농장을 운영해왔고, 토지도 목장용지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허가 건물도 없고 축산업등록증도 나와 있습니다. 양돈장을 매입해도 축산을 계속 이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각 지자체 별로 조례의 내용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해당지역을 절대적 제한지역(또는 전부제한지역)과 상대적 제한지역(또는 일부 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절대적 제한지역에서는 기존의 농가가 있더라도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축산을 하지 못하도록 폐쇄 또는 이동 조치를 하고 있고, 상대적 제한지역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었으면 일단 계속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하지만, 증축이나 개축 또는 매매 임대차 등을 엄격히 금지하여 결국 폐업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미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축사를 매입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으므로, 사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정식민원을 제기하여, 귀하가 매입을 할 수 있는지, 또한 매입한 후 계속 양돈을 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정식으로 답변을 받아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김태욱
ktw3801@nate.com
(제공:대한한돈협회)

기고 | 소비자 선호와 돼지도체등급

유병현 박사
〈다비육종 고문〉

'규격' 표시로 합리적 소비 유도를

지난 9월초 일산 킨텍스에서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이 열렸을 때 일이다. 돼지고기 브랜드 부스를 찾은 한 방문객으로 부터 '지방이 많지 않은 돼지고기가 좋은데 어떤 등급을 골라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쉽게 답변하기 어려웠다. 일단 1+등급보다 등지방이 얇으면 1등급이 되지만, 1등급에는 1+등급보다 등지방이 더 두꺼운 도체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 이하 등급에서 도체의 등지방두께가 균일하지 못한 것은 대부분 현행 등급제도의 영향이다.

현행 돼지도체 등급제도는 어떤 도체가 우수한지 판정해서 소비자에게 최고등급인 1+등급을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도체등급을 결정하는 요인은 우열이 분명한 것만은 아니다. 등급을 결정하는 요인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째는 어느 경우에나 만족시켜야 하는 요인으로서 위생, 조직감, 비정상 육색, PSE, 이상육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등지방두께나 육색처럼 일정 범위 내에서는 소비자의 선호가 다를 수 있는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도체중의 경우 주로 도축,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요구되는 요인이다.

그러므로 도체등급규정을 소비자의 선택에 초점을 맞춰 설정할 경우 등지방두께와 육색에 있어서는 소비자 선호에 따라 어떤 고기가 좋고, 어떤 고기가 좋지 않은지 다를 수 있는 만큼 등급을 부여해주는 대신 도체의 규격을 알려줌으로써 소비자 스스로 원하는 도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이는 곧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1+, 1 및 2 등급 대신 등지방두께에 따라 도체를 분류해주는 방법이다. 등지방두께에 따라 10mm, 15mm, 20mm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규격을 나타내면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규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육색을 적색(R), 분홍색 (P) 등으로 구분해서 선택이 가능케 할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엔 '등급'이란 용어 대신 '규격'을 사용하는 게 적합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R, 15P, 20P 등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당연히 기본적인 조건 (첫 번째 요인)을 만족시킨 도체만 이러한 규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 이와 같은 '규격'은 매장에서 고기를 보지 않고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호주의 AUSMEAT처럼 온라인 경매가 도입된다면 그 기초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규격을 나타냄으로써, 소비자가 스스로 원하는 규격을 선택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소비자의 품질 불만을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돕는 효과도 기대할수 있을 것이다.

※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돈사료 월간 50만톤 재진입

9월 50만8천여톤 생산…4개월만에

3분기 149만톤…전분기比 5.2%↑

월간 양돈용배합사료 생산량이 또다시 50만톤을 넘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9월 50만8천432톤의 양돈사료가 생산됐다.

이는 전월대비 4.8%, 전년동월대비 1.8%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지난 5월 이후 4개월만에 월간 생산량 50만톤대에 재진입, 최근의 사육두수 증가세를 뒷받침했다.

특히 올 3/4분기(7~9월)에만 148만5천298톤의 양돈사료가 생산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4.9%, FMD 이전인 2010년 동기 대비 12.5%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분기(2/4분기)와 비교할 때도 5.2%가 많은 물량이다.

이에따라 올들어 생산된 양돈사료는 447만6천787톤에 달하며 전년동기 대비 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